

朝鮮後期 刊本文集의 編輯傾向

-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김수진*

-
- | | |
|--------------------|------------------|
| 1. 序論 | 4. 刊本文集 編輯方式의 特徵 |
| 2. 文集刊行과 編輯의 문제 | 5. 結論 |
| 3. 刊本文集과 筆寫本文集의 比較 | |
-

초록: 조선시대에 문집은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에 편찬되었으므로 저자의 원고와 간본 문집 사이에는 '後人の 編輯'이라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저자의 遺稿는 刊費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인의 선별을 거치며 簡約하게 압축되었다. 그러므로 실제의 변개를 수반한 편집의 문제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간본 문집이 주로 어떤 작품을 배제하고 있는가, 누락된 작품의 대표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조선 후기 간본 문집에서 누락된 작품을 대상으로 그 공통된 경향성을 탐색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李植의 『澤堂先生集』과 『澤堂先生遺稿』, 李頤命의 『疎齋集』과 『疎齋先生集』, 申靖夏의 『怨菴集』과 『私稿』, 趙龜命의 『東谿集』과 『乾川藁』, 李胤永의 『丹陵山人遺集』과 『丹陵遺稿』, 趙文命의 『鶴巖集』과 『鶴巖稿』를 비교하고, 여기에 기존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서 산삭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신이성과 허구성의 배제'이고 둘째는 '도불 관계 작품의 소거'이고 셋째는 '개인사적 측면의 축소'이고 넷째는 '외설성과 유희성의 소거'이며 다섯째는 '정치적 기회성과 당파성에 의한 산삭'이다. 이와 같은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조선 후기 간본 문집이 지금의 형태로 전래된 것은 '편집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핵심어: 간본 문집, 필사본 문집, 후인의 편집, 편집경향, 산삭의 유형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序論

조선시대에 문집은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에 편찬되었다. 저자가 자신의 글을 직접 정리하지 않고 타계한 경우, 학연·지연·혈연으로 연결된 후인이 그 遺稿를 수습해 문집을 간행하였다. 저자가 자신의 글을 직접 정리해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간행은 그 사후에 이루어졌으므로 自編原稿과 刊本文集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저자의 원고 혹은 그 유고를 정리한 稿本은 現存本이 극히 적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 망실되기 쉬운 반면, 간본 문집은 대량 제작되고 널리 유포되므로 당대에는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표적 예로 澤堂 李植(1584-1647)은 규장각에 여러 종의 문집이 소장되어 있다. 간본으로는 저자 사후 1674년 宋時烈(1607-1689)이 편집을 주도해 만든 初刊本 및 1747년에 제작된 重刊本 등이 있고, 필사본으로는 稿本 『澤堂先生遺稿』와 『澤堂先生遺稿刊餘』 등이 있다. 그 중 후자는 간본에 비해 수록내용이 풍부해 저자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케 하지만, 전자가 그간 택당 연구의 주된 텍스트로 활용되었다. 저자의 원고에 보다 근접한 텍스트 대신에, 송시열이 편집한 간본 문집이 택당 연구의 주된 자료로 이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저자의 원고와 간본 문집 사이에 ‘後人の編輯’이라는 매개변수가 개입함을 유념케 한다. 즉 간본 문집이 저자의 유고를 실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후인의 加筆을 거쳐 만들어진 것임에 유의하도록 한다. 이에 본고는 규장각 소장 문집 가운데 17세기 이후에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본 문집의 편집경향에 대해 탐구하려 한다.¹⁾ 간본 문집에서 주로 어떤 작품이 누락되었는가를 살피고 그 刪削의 대표적 유형을 짚어봄으로써, 조선 후기 간본 문집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본고가 연구대상을 17세기 이후 간행 문집으로 한정할 까닭은, 17세기가 전시대와 달리 문집 출판에서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보인다는 시각에 의해서이다. 조선시대 문집 편찬에서 17세기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2. 文集刊行과 編輯의 문제

일반적으로 편집이란 저작물의 수집, 고본의 제작, 수록작의 선정, 字句의 校訂, 淨書에 이르기까지 문집 간행에 필요한 예비적 작업을 포괄한다. 그중 출판의 절차라든가 자구의 교정에 관해서는 서지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교정쇄로 활용된 필사본 문집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시대 문집 교정의 실태와 교정 부호의 기능 등을 논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²⁾

그런데 실제의 변개를 수반하는 편집의 문제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록작 선정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佔畢齋集』, 『南冥集』, 『葛庵集』은 당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冊版이 소각되고 내용의 增削을 거쳐 改刊되었다.³⁾ 그러나 정치·사상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만 후인의 편집이 저자의 유고를 변개시키는 것은 아니다. 동시대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저자 사후 간행 관례가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하였으므로 저자의 유고는 대부분 후인의 편집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간본 문집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⁴⁾ 특히 저자의 유고는 刊費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인의 선별을 거치며 簡約하게 압축되었다. 논란의

2) 문집 출판의 절차에 대해서는 류탁일, 2001 『韓國 옛 '文集'의 樣態와 出版過程』,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 세종출판사, 377-393면 참조. 문집 교정에 대해서는 이복규, 1996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9, 한국고문서학회, 457-482면; 장원연, 2009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 서지학회, 521-554면; 임덕선, 2010 『朝鮮後期 文集의 校讎 研究: 『凝齋詩稿』와 『荷塘稿本』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87면 참조.

3) 『점필재집』의 毀板에 대해서는 류탁일, 위의 책, 382면; 『남명집』의 重刊과 板本の 계통에 대해서는 김윤수, 1992, 『『南冥集』의 冊板과 印本の 系統』, 『남명학연구』 2, 남명학연구소, 205-255면; 『갈암집』의 중간과 板變에 대해서는 김윤수, 1998 『葛庵集의 庚午板變과 『南冥合集』의 葛銘 添削本』, 『동방한문학』 14, 동방한문학회, 3-11면 참조.

4) 대표적 예로 許穆의 『記言』은 저자가 생전에 작품을 선정해 原集과 續集으로 편집해 놓았음에도 정작 간행은 사후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선 류탁일, 2000 『眉叟 許穆 『記言』 및 著述 刊行』, 『星湖學派의 文集刊行研究』, 부산대학교출판부, 42-62면 참조.

중심이 되어 여러 판본으로 중간된 경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간본 문집은 대부분 상당한 刪削을 거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 후기 간본 문집의 산삭비율을 알아보면, 金壽恒(1629-1689)의 『文谷集』은 유고 중 韻文의 6/10이 덜어지고 散文의 절반이 덜어져 간행되었다.⁵⁾ 그리고 宋穉圭(1759-1838)의 『剛齋集』은 수습된 12책의 유고를 절반에서 2/3까지 산삭해 총 7책으로 인출되었다.⁶⁾ 또한 趙龜命(1693-1737)의 간본 문집인 『東谿集』은 『乾川藁』 수록작 208편 가운데 136편을 담아내고 있는바 결본을 제외하고 약 35% 정도를 누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아울러 李麟祥(1710-1760)의 간본 문집인 『凌壺集』은 『雷象觀藁』의 7/10 정도를 누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⁷⁾

이와 같이 저자의 유고에 근접한 稿本에서 적게는 1/3 정도의 분량을 덜어내거나 많게는 2/3 정도를 상회하는 분량을 배제시킴으로써 간본 문집이 만들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산삭을 통해 저자가 득의작이라 여긴 작품이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간본 문집에 배제될 수도 있고, 작품의 선별적 취사로 인해 저자의 실재가 윤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의 변개를 수반한 편집의 문제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간본 문집이 주로 어떤 작품을 배제하고 있는가, 누락된 작품의 대표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간본 문집에서 어떤 작품이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간본 문집과 필사본 문집이 병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사본은 간본에 비해 그 수록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만약 간본 문집이 없다면 간행 준비를 위해 편집이 더해진 필사본 문집이 존재해야 한다.

5) “今於遺集之編，詩刪者十之六，文半之，務從簡約，以遵遺旨。”(金昌協, 『文谷集跋』, 『文谷集』 한국문집총간 133, 553면)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6) “我先人掇拾斷爛之留存者，撮刪衰輯，編爲十二冊，以家力不逮，未及鉅梓。(…)卷帙衰如，則易或散落，而妨於壽傳，覽者亦患其支煩，不如約之爲貴，故就其中，更加刪削，詩疏以下各文，或刪其強半，或刪其三之二，至於墓文、行狀，亦略加存拔，尾附若干附錄爲七冊。”(宋騏洙, 『剛齋集識』, 『剛齋集』, 총간 271, 341면)

7) 김수진, 2011 『『乾川藁』 解題』, 『乾川藁』, 규장각 영인본, 14-17면; 2012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38면.

그러나 현존하는 문집의 대개가 간본이면 간본, 필사본이면 필사본의 하나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내용상의 편집의 문제를 논한 연구가 의외로 저조한 까닭은 이러한 자료의 제약에 기인한다.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요건에 맞는 문집을 선별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의 분석 대상 가운데 李植의 『澤堂先生集』과 『澤堂先生遺稿』 및 『澤堂先生遺稿刊餘』, 李頤命(1658-1722)의 『疎齋集』과 『疎齋先生集』, 申靖夏(1681-1716)의 『恕菴集』과 『私稿』, 趙龜命의 『東谿集』과 『乾川藁』, 李胤永(1714-1759)의 『丹陵山人遺集』과 『丹陵遺稿』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며, 趙文命(1680-1732)의 『鶴巖稿』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규장각에 소장된 이들 문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柳夢寅(1559-1623)의 『於于集』과 『默好稿』, 黃胤錫(1729-1791)의 『頤齋遺藁』와 『頤齋亂藁』, 李麟祥의 『凌壺集』과 『雷象觀藁』, 朴趾源(1737-1805)의 『燕巖集』 및 『熱河日記』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편찬방식이 검토된 자료들도 그 성과를 이어 받아 본고의 유형화 속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다.

3. 刊本文集과 筆寫本文集의 比較

1) 『澤堂先生集』과 『澤堂先生遺稿』

규장각 소장 『澤堂先生遺稿』는 택당의 아들인 李端夏(1625-1689)가 저자 사후 유고를 정리해 만든 稿本과 관련이 있다.⁸⁾ 단, 이단하가 목록의 말미에 쓴 『山藏

8) 『澤堂先生遺稿』는 表題와 卷首題가 다를 뿐더러 책별 권수제도 다르다. 表題는 '澤堂先生集'이고 본문 제1책의 권수제는 '澤堂遺稿'이며, 제2책의 권수제는 '澤堂詩稿'이고 제3책의 권수제는 '澤堂集'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책과 간본 『택당선생집』 및 필사본 『택당선생유고간여』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택당선생유고』로 명명하기로 한다. 장유승, 『최고(最古)의 <관동별곡(關東別曲)>』(『문헌과해석』 32, 태학사, 2005, 204면)에서는 이 책을 이단하가 간행을 염두에 두고 부친의 저술을 필사한 초고본 『택당선생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先稿全集後記事』와 실제 본문의 수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단하의 手稿本 그 자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단하의 고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後寫本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택당선생유고』에는 傳으로 분류된 세 편의 글 가운데 유독 「崔生遇鬼傳」만이 간본에 수록되지 못했다. 다음은 그 작품의 일부분이다.

崔生이 처음 소변을 보러 문밖에 나갔을 때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어떤 소년이 다가와 인사하며 “당신과 사귀고 싶소!”라고 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하길 “나는 愼海翊이라 하오”라고 했다. 최생은 그가 장원학사라는 것을 알았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신해익이 말하였다. “마침 여러 사람과 근처에서 모이기로 했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눕시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작은 가마를 대령하라 하고, 자신도 다른 작은 가마를 타고 최생과 나란히 갔는데 짐꾼과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⁹⁾

주인공 최생이 신해익을 만나는 장면이다. 최생은 광해군대 실존 인물인 崔文潑(1607-?)이고, 그가 만난 愼海翊(1592-1616)은 광해군 5년에 장원급제했지만 요절하고만 수재를 가리킨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최생우귀전」은 주인공 최문발이 이미 고인이 된 신해익의 혼령을 만나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최생이 신해익의 안내로 어느 仙宮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綱目』의 한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쫓겨났다는 것이 줄거리의 대강이다.

이식은 최생의 이야기를 그 아버지인 崔基瓣(1573-1645)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혀 놓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최생과 신해익의 神異談에 서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택당선생유고』에 실린 「庶舅尹百祥傳」과 「金防禦使傳」이 인물의 生平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전의 전통적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과

9) “生始爲便溺出戶，則有一少年，面貌端麗，就揖曰：‘願與交。’其名則曰：‘我是愼海翊也。’生認愼是壯元學士而不悟已故也。愼曰：‘適與諸人會于近處，君可偕我打話也。’仍命僕進小輿，愼亦自乘一小輿，揖生並駕而行，擔夫徒衆甚盛。”(李植, 「崔生遇鬼傳」, 『澤堂先生遺稿刊餘』 卷8, 규장각 소장본) 현재 『택당선생유고』(古3428-67A)는 목록상 傳이 수록되었다고 표시된 卷15가 결본 상태이다. 따라서 「崔生遇鬼傳」의 본문은 『澤堂先生遺稿刊餘』의 수록내용을 참고해 인용한다.

대조적이다. 이들 두 편의 전은 간본 문집에 수록된 반면 『최생우귀전』만은 간본에 누락되었다.

한편 『택당선생유고』에 실린 『淸虛集序』, 『李相國所撰淸虛堂碑陰記』도 간본에 실리지 못했다. 『淸虛集序』는 西山大師 休靜(1520-1604)의 『淸虛堂集』에 부친 서문이고, 『李相國所撰淸虛堂碑陰記』는 月沙 李廷龜(1564-1635)가 쓴 『西山淸虛堂休靜大師碑銘』과 짝을 이루는 碑陰記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의 존립에 힘을 쓴 휴정의 구국정신을 높게 평가해서, 그의 문집에 서문을 달고 그 사후 비문도 지은 것이다. 이식은 특히 비음기에서 “우리 선비들이 평소에는 책을 끼고 어진 師友를 종유함이 성대하지 않은 게 아니었거늘 그 죽음에 미처서는 마침내 자취가 민멸되었으니 이들 沙門에 부끄러운 점이 또한 많다 하겠다. 어찌 異學과 別岐라고 알 잡아보겠는가?”¹⁰⁾라고 하여, 이단을 하찮게 여기는 유자의 태도에 반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간본 문집은 휴정과 관계된 이들 두 편의 글을 모두 누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간본 『택당선생집』은 『海東傳道錄』에 대한 글인 『書傳道秘記後, 贈順上人』도 누락하였다. 『해동전도록』은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도교의 역사를 다룬 道家書이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택당 이식이 『해동전도록』을 입수해 관련 글을 짓고 그 책을 세상에 유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현존하는 필사본 『해동전도록』에도 이식의 글이 발문처럼 수록되어 있다.¹¹⁾ 해당 글에서 이식은 해동도가의 시조인 崔承祐와 金可紀의 행적을 논하고 이 책을 잘 간직해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¹²⁾ 그리고 같은 글에서 “본래 나는 이단을 배척하지 않는다”¹³⁾라고 밝힘으로써, 도가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0) “噫! 吾黨之士, 平日挾冊, 從賢師友遊, 非不盛, 及其死而遂泯其迹, 有愧于此沙門者, 亦多矣. 寧可以異學別岐而少之哉?”(李植, 『李相國所撰淸虛堂碑陰記』, 『澤堂先生遺稿』 卷12, 규장각 소장본)

11) 이규경(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81 『도장총설』, 『국역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18집, 23면; 傳 韓無畏, 『海東傳道錄』, 규장각 소장본.

12) “近復見中朝新刻來神龕通鑑書, 則有金可紀從申元之學事蹟, 可紀之名已見唐詩, 在崔孤雲之前, 此書言可紀餘崔承祐同學進士, 我國所記則承祐之名在孤雲之次, 此不可知也, 而二人之入唐登第, 則此書不誣矣. 嘗欲考求年月, 驗其真妄, 傳之好事者, 病臥東山, 精力未到, 取以贈太白山人, 使藏之僻處, 以竣可專之人焉.”(李植, 『書傳道秘記後, 贈順上人』, 『澤堂先生遺稿』 卷14)

간본 문집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해동전도록』에 수록된 글이 과연 택당의 저술이 맞는지, 유자인 택당이 도가서의 전수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더군다나 『택당선생유고』에는 도가의 유용함을 논한 「問道家者流」라는 策文이 실려 있고, 도가의 양생법을 논한 「紳兒北行戒帖」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그러나 「문도가자류」 역시 간본에 누락되었고 「신아북행계첩」은 간본에 실렸으며 도가의 수련법을 논한 부분만 삭제된 채 실리었다. 편집에 의해 특정 작품이 배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품 안에서도 특정 부분이 소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疎齋集』과 『疎齋先生集』

규장각 소장 이이명의 『소재선생집』은 奎藁 初本으로 매 작품의 제목 혹은 해당 본문의 첫줄 위에 간본의 취사를 결정짓는 紅點이 가해져 있다. 그런데 홍점이 찍히지 않은 작품 중에는 霜峰淨源(1627-1709)이 지은 『別行錄私記分科』와 『禪源集都序分科』에 관한 跋文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별행록사기분과』에 부친 발문의 주요 부분을 들어본다.

『別行錄』은 主峯禪師의 저술인데 奎藁는 전해지지 않는다. 신라의 승려 知訥이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추리고 私記를 지어 덧붙였다. 지눌의 책은 禪宗 四宗의 同異를 모아서, 頓悟와 漸修를 종합해서 일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형식이 類書와 다르지 않고 부처가 祇桓에서 설법한 글과 같지 않아서, 뜻이 오묘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학설이 분분해 초학자가 미혹되기 쉬우므로 霜峰禪師가 그 책에 단락을 나누고 해석을 달았으니 이른바 주석에 주석을 단 책이라 이를 만하다. (...) 나는 평소 불경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선사와 담론을 나누어 선사의 학식이 어느 경지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으니 한스럽다. 그러나 私記에서 일컬은 바 文字와 學識을 業으로 삼지만 세상에 나가 觀行함을 끝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뜻이겠는가? 선사는 필시 이 책으로써 後學을 권면한 것이다.¹⁴⁾

13) “我本不攻異端.”(李植, 『書傳道秘記後, 贈順上人』, 『澤堂先生遺稿』 卷14)

14) “『別行錄』者, 主峯禪師所著, 其全書不傳, 而羅僧知訥節其要語, 又爲之私記以附益之. 其書集

인용문에 나오는 ‘主峯禪師’는 중국 華嚴宗의 5祖인 宗密을 가리키고, ‘『別行錄』’은 종밀이 지었다는 『法集別行錄』을 가리킨다. 고려시대 知訥(1158-1210)은 『법집별행록』의 요점을 추리고 여기에 私記를 더해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를 편찬했는데 상봉정원이 다시 지눌의 책에 해설을 더한 註解書를 만들자 이이명이 위의 발문을 지은 것이다.

비록 발문에서 이이명은 지눌을 신라의 승려로 착각했지만 상봉정원의 『별행록사기분과』 편찬이 갖는 불교사적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눌이 禪의 頓悟와 敎學의 漸修를 종합하기 위해 종밀의 『법집별행록』에 대한 해설서를 편찬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그 다음에는 상봉정원이 지눌의 선교일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다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대한 해설서를 편찬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지눌의 사상은 조선시대에 西山大師 休靜에서 鞭羊彥機(1581-1644)로 다시 상봉정원으로 이어졌으므로, 상봉정원의 『별행록사기분과』 편찬은 이러한 조선 불교의 범맥 아래 성립된 일이었다.¹⁵⁾ 그러므로 이이명은 발문에서 상봉정원이 어떠한 불가의 전통 아래 『별행록사기분과』를 찬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본에 누락된 『禪源集都序分科跋』도 상봉정원이 종밀의 『禪源諸詮集都序』에 주석을 단 『禪源集都序分科』를 편찬하자 지은 발문이다. 이 글에서 이이명은 평소 상봉정원과 모임을 결성하기를 원하였던바 일찍이 그로부터 『禪源諸詮集都序』에 관한 설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술회하였다. 상봉정원은 達磨大師가 心法을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한 후 돈오와 점수의 교리가 양립하자 종밀이 이 책을 지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이이명은 불가의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마치 유가의 尊德性和 道

四宗之同異，合悟修而爲一者也。然其例則與類書無異，蓋非若祇桓說法之文，義奧而難通也。顧衆說抵牾，初學易眩，霜峰師爲之分段解釋，所謂註脚之註脚也。(…)余素不習內典，恨不得與師揮塵談論，以觀師學力在何乘也。然記中所云，但以文字學解爲業而觀行出世終不掛懷者，亦何意也？師必以是勉後學也。”(李頤命，『別行錄私記分科跋』，『疎齋先生集』卷18，규장각 소장본)

15) 지눌을 계승한 조선 불교의 범맥에 대해서는 심재룡, 2004 『지눌연구: 보조선과 한국불교』, 서울대학교출판부, 155-157면 참조.

問學의 양립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였다.¹⁶⁾

老論四大臣 중 한 명인 이이명이 전문적인 불가서에 발문을 남긴 것도 흥미롭거니와 이처럼 그는 불가의 전통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봉정원의 편찬 작업이 갖는 의미를 논구하였다. 반면 간본 『소재집』은 저자의 이러한 면모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두 편의 발문이 모두 『소재집』에 누락되었을 뿐더러, 간본에서 상봉정원이 등장하는 작품은 앞의 발문과 사뭇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재선생집』에 실린 상봉정원 관계 작품 가운데 간본 『소재집』에 수록된 것은 『霜峰海月堂記』 단 한 편뿐이다. 이 작품은 상봉정원이 龍門寺의 方丈室에 ‘海月’이란 당호를 짓자 그 이름을 지은 경위를 밝힌 堂記이다. 기문에 의하면 선사는 출가한 지 오래됐건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게 항상 한스러워서 결국 어머니의 태몽에서 그 뜻을 취해 ‘해월’이란 당호를 지었다고 한다. 이에 이이명은 선사가 어려서 유가의 도리를 접하지 못해 출가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선사의 마음에孝의 윤리가 남아있음을 상찬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줄거리에서 일별할 수 있듯 『상봉해월당기』는 유자의 입장에서 불가의 출가법이 갖는 비인륜성을 비판하고, 선사의 효를 표창하는 데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 있다. 그러므로 간본 수록작만 놓고 보면 상봉정원이 조선 중기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누락작에서 감지되는 이이명의 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불가에 대한 관심 역시 포착되지 않는다.

이것은 간본 『소재집』이 老論의 주요 인사인 洪鳳漢(1713-1778)의 지원 아래 편찬되었다는 점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辛壬獄事로 줄한 노론사대신은 1740년 庚申處分에 의해 忠逆是非가 일단락되고 復官되었는데, 홍봉한은 이들의

16) “余於禪家語，未啜其糟粕，嘗與源師遊，誠有結社之願。師爲余說其法曰：“達摩以前戒行修，達摩以後心法傳，其後各開門戶，頓悟漸修之學不相容，此主峯禪師之所以著『都序』者也。(…)余雖聽其言，亦未詳其書之旨趣，而但以師言推之，疑若吾家尊德性道問學之學兩立而不能一也。”(李頤命, 『禪源集都序分科跋』, 『疎齋先生集』卷18)

17) “惜乎! 不使其早聞吾父子君臣之理也，苟能善推此至性，要其所成就，豈宜終老於誦羅尼訓沙彌之業哉? 余既感師之能有孝道，爲之記其堂，且以勸世之不出家而忘大倫者。”(李頤命, 『霜峰海月堂記』, 『疎齋集』卷10, 총간172, 256면)

문집이 아직 간행되지 않은 것은 품輩의 수치라고 간주하고 1758년 즈음 그 문집의 편찬을 일제히 지원하였다.¹⁸⁾ 즉 노론사대신의 忠烈을 선양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문집 간행을 지원한 것인바 『소재집』의 편집에도 이러한 편찬 의도가 작용해서 노론 사대신의 사상적 순정성에 혐의될 만한 글은 배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3) 『恕菴集』과 『私稿』

규장각 소장 『私稿』는 신정하의 필사본 문집인데, 여기에는 간본 『恕菴集』에 실려 있지 않은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 鄭來僑(1681-1759)에 관한 다음 편지는, 간본 문집의 수록작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제가 來僑에게 책을 읽게 가르쳤던 때를 혼자 생각해봅니다. 그 부모친척이 모두 원치 않았지만 저는 그의 재주가 가히 성취될 수 있음을 예석히 여겨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시다. 내교 또한 제가 그 부모의 말을 저버린 것에 감발하여 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 내교가 이토록 궁핍해진 것은 실로 저의 탓입니다. 지금의 사대부들이 내교의 재주를 사랑하고 시문을 좋아해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그를 알면 禮로써 대해주지 않는 자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내교에게 이런 것들을 얻게 한들 일신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 궁핍함만 도리어 심하게 할 뿐입니다. 비록 내교는 책을 읽어 義理를 알기에 저를 닦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부모친척의 말을 어찌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를 그르친 것도 부족해 다른 사람까지 그르치게 함이 또한 심하다 하겠습니까.¹⁹⁾

18) 홍봉한의 노론사대신 문집편찬 지원에 대해서는 “我祖考忠文公遺集, 掇拾禍難之餘, 軼漏未備, 又患無力傳後, 今判書洪公鳳漢, 慨然任其事, 印布四公之書, 四公者, 忠獻公公昌集, 忠翼 趙公泰采及公從父弟忠愍公健命與公, 而爲四也.”(李鳳祥, 『疎齋集後序』, 『疎齋集』 총간 172, 500면): “後三十七年戊寅, 尙書洪公鳳漢 翼汝氏使人致意曰: ‘夫以四大臣之忠烈, 而使其文不傳于世, 吾輩恥也. 幸諸子之肯我其剗剗之費, 我其自任焉.’”(金元行, 『夢窩集後序』, 『夢窩集』 총간153, 3면) 참조.

19) “獨念靖夏當日之教來僑以讀書也, 自其父母親戚, 皆不欲之, 然靖夏惜其才之可以有成, 而爲不聞也者, 來僑亦感余之爲棄其父母之言而以從余, 嗚呼! 使來僑而至此窮者, 實靖夏之爲也, 今之士大夫, 愛才好詩文, 而不識來僑者, 蓋鮮矣, 其識之而不以禮際之者, 亦無之矣, 然使來僑而得此數者, 是亦何益於其身, 而其窮顧益甚耳, 雖來僑讀書知義理, 不欲以此尤我, 而其父母親戚之言, 亦何能使已之耶? 自誤之不足, 而又以誤人, 其亦甚矣.”(申靖夏, 『與趙上舍重甫

『趙上舍 重甫에게 鄭生 來僑에 대해 논한 편지』의 한 대목이다. 趙重甫는 신정하와 동시대 인물인 趙鼎彬(1681-?)으로 추정된다. 증보는 그의 字이다.

이 편지에는 정래교의 가난을 염려하는 신정하의 마음이 여실히 표출되어 있다. 정래교의 일가친척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하가 그의 재주를 안타깝게 여겨 독서를 권유했다는 점, 이에 정래교가 문학에 종사하며 빈한한 삶을 살게 되자 신정하가 그의 생활고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는 점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전체 맥락으로 보건대 위의 편지는 조정빈에게 정래교의 궁핍함을 알리고 경제적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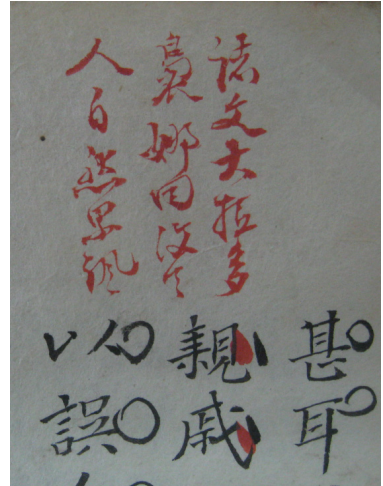
본래 신정하는 洪世泰(1653-1725), 鄭後僑(1675-1755) 등 중인층 인사와 가깝게 교류했는데 동년배 정래교와는 그중에서도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²⁰⁾ 그러나 간본 문집인 『서암집』에는 신정하가 정래교의 문필활동을 독려하고 교류했다는 사실 정도만 나타나 있을 뿐, 위의 편지처럼 상세하게 두 인물의 관계맺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즉 정래교가 중인임에도 문학을 업으로 삼게 된 데에는 신정하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 이러한 정래교의 가난을 염려해 신정하가 백방으로 후원을 모색했다는 점이 간본 문집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더욱이 간본 『서암집』에는 정래교의 가난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사뭇 시각을 달리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간본 『서암집』에는 독서를 위해 牛峽으로 떠나는 정래교에게 보낸 送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정래교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편지와 동일하지만 여기서 신정하는 가난을 깨닫치 않는 것이야말로 독서인의 본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는 이들도 있지만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顏淵처럼 외적 상황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¹⁾ 물론 이 송서는 정래교를 권면하

論鄭生來僑書』, 『私稿』, 규장각 소장본)

- 20) “委巷土之以詩名世而從吾遊者有三人焉，曰滄浪 洪道長 鄭惠卿 鄭潤卿，三人之中，老者滄浪，少者二鄭，而潤卿獨於余爲同齒，余之知三子也，潤卿爲最先，滄浪 惠卿其次也。”(申靖夏, 『贈鄭生來僑序』, 『恕菴集』 卷10, 총간197, 354면)
- 21) “夫貧固可憂也，而學而不能忘貧之爲憂，則其所謂學之淺深，蓋可見矣，故古之爲學者，未聞以其貧廢學，良以好學之心，能勝其惡貧之心故也。(…) 嗚呼！土之志於學而不以顏氏自期者，

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상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본의 수록작은 누락된 편지에 비추어 볼 때 가난에 대한 초연한 자세라고 할까, 학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 태도가 증시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申靖夏, 「與趙上舍重甫論鄭生來僑書」, 『私稿』

「與趙上舍重甫論鄭生來僑書」, 부분

반면 앞서 살펴본 「趙上舍 重甫에게 鄭生 來僑에 대해 논한 편지」의 본문에는 墨點, 墨圈, 紅點 등이 다양하게 가해져 있어 이 편지가 당대 문사들에게好評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앞에 인용한 대목은 전문에 걸쳐 뾰뾰하게 권점이 가해져 있다. 또한 위에 제시한 것처럼, 그 書眉에는 “여러 글이 대저 매우 간드러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히 거듭 암송하게 한다”(諸文大抵多裊娜, 因復令人自然累諷)라는 評語도 적혀 있다. 편지에 저자의 절절한 감정이 표백되어 있어, 그 진솔한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거듭 읽게 한다는 감상평인 것이다.

참고로, 간본 『서암집』은 저자 사후 조카인 申昉(1686-1736)과 벗인 李瑋(1676-

果可以言學乎? 生能審於此而知所取捨, 則庶乎少瘳其憂矣.”(申靖夏, 「送鄭生來僑讀書牛峽序」, 『恕菴集』 卷10, 총간 197, 352면)

1727), 愼無逸(1676-?)이 유작을 선별하고, 여기에 다시 이차 선별이 가해져 1739년에 간행되었다.²²⁾ 그리고 규장각 소장 『愼菴先生集選本』에는 매 작품마다 여러 종의 권점이 찍혀 있고 卷1의 말미에는 “黑點斗川, 靑點白淵, 紅點屯菴”이라는 기록이 있다.²³⁾ 따라서 斗川 李瑋, 白淵 愼無逸, 屯菴 申昉이 신정하의 작품 선정에 참여했고, 권점이 많은 작품 그중에서도 흥권이 처진 작품은 간본 『서암집』에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암선생집선본』의 경우를 감안하건대, 권점이 많고 眉批가 있는 작품인 『趙上舍 重甫에게 鄭生 來僑에 대해 논한 편지』가 간본 『서암집』에 누락된 것은 작품의 질이라든가 완성도 때문은 아님을 가늠케 한다. 아마도 내용상의 측면이 문제시된 게 아닐까 싶다. 생활고라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 그리하여 지나치게 사적인 감정을 노출했다는 점이 문제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4) 『東谿集』과 『乾川藁』

규장각 소장 『간천고』는 조귀명의 필사본 문집으로 현재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조귀명의 간본 문집으로는 『동계집』이 있는데, 『동계집』은 趙顯命(1690-1752)이 저자 사후 유문을 편집해 1741년에 초간하였고, 그 후 黃景源(1709-1787)이 1752년에 다시 복간하였다.²⁴⁾ 『간천고』에는 실렸으며 『동계집』에는 없는 작품 가운데 『贈定平詩妓翠蓮序』를 읽어보기로 한다.

徐質甫가 北評事로 있을 때 枕席을 같이 하고 여러 시를 수창했는데, 질보는 고상하고 시에 조예가 있었으므로 그녀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더욱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安邊까지 전송하며 따라가고픈 뜻을 보였지만 질보는 도리어 모질게 거절하였고, 전후로 보낸 詩柬이 몇 묶음이었지만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지금 다시 그녀

22) 『서암집』의 편찬에 대해서는 申暲, 『愼菴集跋』, 『直菴集』 卷10, 총간 216, 302면 참조.

23) 『서암선생집선본』에 대해서는 김대중, 2005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면 참조.

24) 『동계집』의 편찬 및 『간천고』와 『동계집』의 관계는 김수진, 2011 『『乾川藁』 解題』, 『乾川藁』, 규장각 영인본, 5-31면 참조.

가 천리 서울까지 달려와 한 번 만날 것을 청하였건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찍이 그녀는 나에게 찾아와 시 한 수를 바친 적이 있다. “금번 계절이 세 번째 봄이노니, 고향 그리움 나날이 새롭구나. 학사께선 風情이 적으시니 이제 헛걸음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河東과 같은 사나운 처 때문에 질보가 그런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음은 秦太虛가 입증한다. 제아무리 뜰 안의 새가 시기한들 어찌 한 마리 들쭈렁을 용납하지 못한단 말인가? 유달리 질보가 괴이하게 구는 것은 다른 풍류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든다. 一朵紅은 내가 평소 질보와 돈독하므로, 고향으로 돌아감을 위로하는 글을 청하였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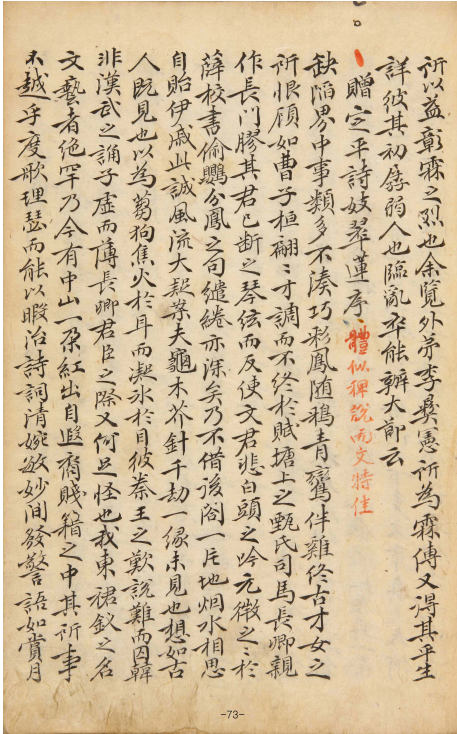
조귀명이 함경남도 정평군의 기녀 翠蓮에게 준 증서의 일부분이다. 취련은 字가 一朵紅으로 徐命彬(1692-1763)이 北評事로 있을 때 총애했던 기녀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徐質甫가 바로 서명빈이고, 질보는 그의 字다. 취련은 서명빈이 한양으로 돌아온 후 그를 잊지 못해 수차례 편지를 쓰고 한양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문전박대 당하였다. 조귀명은 평소 서명빈과 교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취련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 이 글을 지었다.

그런데 이 글은 증서류의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기녀를 위해 지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증서는 먼 길을 떠나는 지인에게 주는 글로서 그 대상 인물이 벗, 스승, 제자, 친척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용도 이별의 심회나 권면과 당부의 뜻을 담아 내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살펴본 신정하의 정래교에게 준 送序가 전형적 예이다. 반면 남성 사대부가 기녀에게 글을 줄 때는 대부분 한시를 이용한다.

증서를 받는 인물이 기녀이므로 조귀명의 글은 내용과 표현 또한 독특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사대부인 서명빈이 아니라 기생인 취련의 입장에 상황을 논하고 있다. 예컨대 사나운 처를 두고도 기녀와 풍류를 즐겼던 陳慥의 예를 거론하면서, 서명빈이 취련을 모질게 대함은 다른 여색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

25) “徐質甫之爲北評事也，獲薦枕席，有唱酬諸作，質甫都雅有致於詩，尤自喜其心有慕焉。送之至安邊，示願從意，質甫顧拒之甚，前後寄詩柬數束，無一報。今又千里走京師，求一面，而終不肯納。嘗造余呈一絕曰：‘今節當三春，鄉愁日日新。學士風情少，今作空歸人。’是也。人或以河東獅吼疑之，此不然爾，秦太虛印已，累累庭鳥之猜，豈不容一野雉耶？特質甫另自作怪，欲再添風流疑案耳。一朵紅以余之雅篤質甫也，乞文慰其歸。”(趙龜命, 『贈定平詩妓翠蓮序』, 『乾川藁』第6冊, 규장각 소장본)

다.²⁶⁾ 그리고 본처와 취련의 처지를 각각 ‘뜰 안의 새’와 ‘들평’에 빗댄으로써 들평 한 마리도 포용하지 못하는 서명빈의 마음씀씀이를 비꼬듯 조롱하고 있다. 남성사대부와 기생의 관계를 미화한다거나 유교적 덕목을 끌어와 분석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채롭다.



趙龜命, 「贈定平詩妓翠蓮序」, 『乾川藁』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글은 간본 『동계집』에 수록되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 『간천고』에는 李天輔(1698-1761), 李廷燮(1688-1744) 등 당대 유수한 문장가의 비평이 적혀 있다.²⁷⁾ 원편에서 보듯 이 작품에는 ‘문체는 패설과 비슷하지만 글은 매우 좋다’(體似稗說而文特佳)라는 이정섭의 紅批가 제목 아래 적혀 있다. 여기서 패설과 비슷하다는 것은 사대부의 저작이 아니라 민간에 나도는 글과 같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비속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이 글이 기생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표현이 완곡하거나 고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자의 글로 보기엔 상스럽다고 여겨진 것이다.

참언하자면 규장각 소장 『瑣編』에는 조귀명의 이 글을 소개한 후 ‘동계의 서문은 본집에 실리지 않았다’(東谿序本集不載)라고 설명해놓았다.²⁸⁾ 이정섭의 비평처

26) 「贈定平詩妓翠蓮序」의 본문에 나오는 ‘秦太虛’는 송나라 때의 시인 秦觀을 말하지만, 사나운 처 河東 柳氏를 두었던 사람은 진관이 아니라 陳慥이다. 동시대 문인인 陳慥와 秦觀을 혼동해서 秦觀으로 잘못 기술한 것이라 여겨진다.

27) 『간천고』의 평점서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수진, 2011 『『乾川藁』 評點批評 再論』,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69-316면 참조.

28) “定平妓翠蓮, 字一朵紅, 能詩善歌舞. 徐判書命彬爲北評事時寵之, 日與唱酬, 及罷歸, 卽絕之.

럼 패설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본 문집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야사집인 『쇄편』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5) 『丹陵山人遺集』과 『丹陵遺稿』

규장각 소장 『丹陵遺稿』는 이운영의 필사본 문집이다. 이운영의 간본 문집으로는 『丹陵山人遺集』이 있는데, 이 간본 문집은 金鍾秀(1728-1799)가 편집을 맡아 1779년에 간행하였다. 『단릉유고』는 1780년에 타계한 이운영의 부인 慶州 金氏의 祭文이 실려 있으므로 간본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단릉유고』 수록작 중 退溪 李滉(1501-1570)이 나오는 작품은 『단릉산인유집』에 모두 실리지 못했다. 대표적 예로 『단릉유고』에 수록된 『山史』란 작품은 도합 18편의 遊記로 이루어진 연작이다. 연작 중 7편이 간본에 수록되었고 11편이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11편 중 5편은 이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한 『赤城山記』도 그 하나이다.

무릇 龜潭의 勝景은 退陶 先生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屏山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 이 산에 도착하시매 매우 기이하여 글을 지어 기록하셨다. 그 글에서 말하길 ‘적성산의 봉우리 중 큰 것이 새 개 있는데 모두 물가에 임하여 우뚝하게 솟아 있지만 中峰이 가장 높다. 층층 바위가 다투어 빼어나고 첩첩 돌이 다투어 연속해서 마치 귀신이 조각한 것처럼 기괴하다’라고 하였고, 또한 말하길 ‘이 때 산에 비가 막 개어서 골짜기 기운이 새로웠는데 마침 玄鶴이 中峰에서 날아와 몇 차례 빙빙 돌다가 구름 낀 하늘로 들어갔다. 내가 배 안에서 술을 들고 시를 읊조리니 초연히 서늘한 바람을 타고 멀리 노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인하여 아래의 봉우리를 ‘彩雲’이라 명명하고 가운데 봉우리를 ‘玄鶴’이라 명명하니 그 보이는 대로 지은 것이고, 위의 봉우리를 ‘五老’라고 명명하니 그 형상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셨다. 아! 이 산은 大賢을 만나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²⁹⁾

翠蓮數寄詩柬，並不一報，後翠蓮入都，求一面，終不納。退而賦詩曰：‘今節當三春，鄉愁日日新。學士風情少，今作空歸人。’東谿 趙龜命聞之，贈其行以序曰：‘天下多文章真丈夫，何必守此負情儂，隨他揚學士，鼈殺鮑參軍，亦尋伊本色而已。’東谿序本集不載。”(任天常, 『瑣編』, 규장각 소장본)

29) “夫龜潭之勝，始發於退陶先生。先生嘗自屏山，挈舟而上，到茲山而甚奇之，爲文以記之。其文

인용문의 초두에서부터 이윤영은 문혀있던 구담의 승경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퇴계 이황에 의해서라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 퇴계의 『丹陽山水可遊者續記』를 직접 인용해 적성산의 세 봉우리가 각각 彩雲, 玄鶴, 五老로 명명되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어 마지막에는 적성산이 퇴계와 같은 大賢을 만났기 때문에 이토록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감탄하고 있다. 구담의 기이한 경치와 적성산의 아름다움이 퇴계로 인해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논한 것이다.

이윤영은 赤城山뿐만 아니라 降仙臺, 可隱洞, 玉笋峰에서도 유람하는 곳마다 퇴계의 자취를 주요하게 기록하였다. 먼저 『강선대기』에서는 강선대 맞은편 언덕에 기생 杜喬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고, 퇴계가 두향과 이곳을 주유하며 읊었다는 시도 기록해놓았다. 『가은동기』에서는 퇴계의 글을 인용해 경치를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터를 잡고 은둔했던 선조 李之蕃(?-1575)이 퇴계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음도 서술해놓았다. 『옥순봉기』에서는 기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퇴계에 대한 이야기로 장식하였다.³⁰⁾

그러나 퇴계가 등장하는 이들 작품은 모두 간본에 수록되지 못했다. 『山史』의 유기적 구성을 고려할 때, 전술한 작품이 모두 누락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산사』의 첫째 작품인 『龜潭記』는 그 다음에 나올 유기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담기』에 나타난 이윤영의 단양 기행 여정은 丹陽郡 下津 → 石柱 여울 → 石芝·鷲子山 → 강선대 → 龜峰·龜潭 → 長淮 → 가은동·적성산 → 옥순봉 → 雲潭이다.³¹⁾ 따라서 『강선대기』, 『가은동기』, 『적성산기』, 『옥순봉기』는 단양 기행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을 유람하고 지은 글이다. 『산사』의 열개를 이루

曰：‘其峯之大者有三，皆臨水峭拔，而中峯爲最，層巖競秀，轟石爭掣，鬼刻神剜，奇奇怪怪。’
又曰：‘于時山雨初霽，峽氣如新，適有玄鶴，自中峯飛出，盤迴數匝，而入於雲霄之表。余於舟中，取酒吟詩，超然有御泠風遊汗漫之意，因以名其峯之在下者曰彩雲，其中者曰玄鶴，以其所見也。其上者曰五老，以其形也。’嗚呼！茲山之遇大賢而獲嘉名，豈偶然也哉！”(李胤永, 『赤城山記』, 『丹陵遺稿』 卷11, 규장각 소장본)

30) 李胤永, 『降仙臺記』, 『可隱洞記』, 『玉笋峰記』, 『丹陵遺稿』 卷11.

31) 『구담기』에 나타난 단양 기행의 여정에 대해서는 박경남, 2001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61면 참조

는 기문들이므로, 작품 내적 이유로 간본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 작품이 누락된 것은 작품 외적인 이유, 즉 퇴계가 東人의 영수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기실 이황은 단양군수로 재임하면서 이곳의 경관을 노래한 많은 작품을 남기었으므로 그의 글과 자취를 빼놓고서는 단양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윤영이 『산사』의 많은 부분에서 퇴계를 예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노론계 문인인 金昌協(1651-1708)도 단양의 구담을 노래하며 퇴계를 떠올렸거니와³²⁾ 이윤영이 『산사』의 여러 작품에서 퇴계를 언급한 것은 문학적으로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비정치적인 작품까지도 당파적 시각 아래 수록작을 취사한 김종수의 편집이다.

『단릉산인유집』의 편집은 김종수가 속한 노론의 史的 系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김종수는 『단릉유고』에서 이황과 관련된 작품을 배제시킴으로써, 노론의 사적 연원이 西人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파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원에 반하는 후대의 기록을 소거한 것이다.

4. 刊本文集 編輯方式의 特徵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 간본 문집과 필사본 문집을 비교하여, 간본에 누락된 작품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제부터는 그간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온 개별 문집의 편집방식에 대한 연구까지 수용하여, 산사의 경향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그 첫째로, 간본 『택당선생집』의 신이담 계열 전의 산사는 『於于集』, 『凌壺集』, 『鶴巖稿』에서 그와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柳夢寅의 간본 문집인 『於于集』에는 귀신이야기

32) 金昌協, 『龜潭』, 『農巖集』卷3, 총간 161, 354면.

를 다른 작품이 누락되었다. 유몽인의 필사본 문집 『默好稿』에는 冤鬼를 물리치는 과정을 담은 장편 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산문은 집안의 흥사를 기록한 황당한 귀신이야기로 간주되어 간본에 수록되지 못했다.³³⁾ 반면 문집과 별개로 『於于野談』이 편찬되었고 여기에는 귀신과 영혼 등 미신적 요소를 다룬 이야기가 대거 수록되었다.

이인상의 간본 문집인 『능호집』도 『뇌상관고』에 실린 5편의 傳을 일제히 누락시켰는데, 그중에는 『方淑齊傳』이 포함되어 있다. 『방숙제전』은 주인공이 尸解仙이라는 점에서 神仙傳 계열의 작품이고, 5편의 전 모두 실존 인물의 생평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전통적인 전과는 선명한 차이가 있다.³⁴⁾

그런데 규장각 소장 『鶴巖稿』는 간본 문집의 이러한 편집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학암고』는 趙文命의 필사본 문집이다. 조문명의 문집은 간행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간본은 없고 여러 종의 필사본이 존재한다. 규장각에만 4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학암고』(古3436-49)는 간본을 준비한 편집 저본으로 추정된다.³⁵⁾

흥미롭게도 『학암고』 수록작 중 『靑霞子權公墓碣銘』에는 본문의 특정 부분에 꺾쇠로 삭제 표시가 되어있다. 이 작품은 權克中(1585-1659)에 대한 묘갈명으로, 그가 생전에 미래를 내다볼 만큼 예지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서술되어 있다. 金自點(1588-1651)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피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학암고』는 해당 일화를 삭제하라고 표시한 후 그書眉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적어놓았다. “이 단락은 매우 신이하다. 청하자는 大儒이고 丹學에 귀의하지 않으셨으니 산거하는 게 합당하다.”(此段太神異, 既以靑霞爲大儒而不以丹學歸之, 則又畧刪去耶) 즉, 신이한 행적은 유자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묘지명에서 산절

33) 신익철, 1993 「『默好稿』를 통해 본 《於于集》 편찬태도」, 『서지학보』10, 한국서지학회, 14-16면.

34) 김수진, 2012 앞의 논문, 43면.

35) 『학암고』(古3436-49)에 표시된 작품의 취사 및 본문의 수정 사항은 규장각에 소장된 또 다른 필사본 『학암고』(古 3428-479)와 淨寫本 『학암집』(奎 15555)에 선별적으로 반영되었다. 한국문집총간의 저본은 정사본 『학암집』(奎 15555)이다.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암고』의 편집자가 권극중을 순정한 유자로 인식해 해당 일화를 삭제한 데에는 물론 이견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권극중이 純儒였는가 아니면 丹學家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유자의 묘지명에는 이러한 신이한 일화의 서술이 맞지 않다고 본 편집자의 시각이다. 신이하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요, 허구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일화는 유자의 묘갈명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산삭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신이한 내용의 작품은 유자의 문집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과 상통한다. 왜냐하면 묘갈명은 대상 인물의 죽음 앞에 찬술되고, 후세에 그 인물의 행적을 남기는 데 목적을 두므로 문집이 저자 사후에 편찬되어 그 작품을 후대에 전하는 것과 동계에 있기 때문이다. ‘유자의 묘갈명에 신이한 행적의 서술은 적합하지 않다’는 편집자의 관점은, ‘유자의 문집에 신이한 내용의 글쓰기는 수록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류의 편집방식은 ‘신이성과 허구성의 배제’란 개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이식의 『최생우귀전』은 任陞(1630-1724)이 편찬한 야담집 『天倪錄』에 ‘愼學士邀赴講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이 글은 택당이 기록한 것으로 제목은 ‘최생귀우록’이다”(此則澤堂所記, 而題曰崔生遇鬼錄)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³⁶⁾ 『최생우귀전』은 간본 문집에 수록되지 못한 대신에 야담집에 실려 전승된 것이다. 택당 이식의 이러한 예는 野談과 같은 비정통 한문학 장르가 간본 문집에서 배제된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³⁷⁾ 비단 비정통 한문학 장르만 문집에 실리기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유가에서 금기시한 怪力亂神을 다룬 것, 사실을 기록하는 據事直書의 글쓰기에 위배되는 것은 간본 문집에 수록되기 어려웠음을 실제 자료에 의거해서 확증

36) 『천예록』에 실린 이식의 傳에 대해서는 임방 편(정환국 역), 2005 『교감 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31-241면 참조.

37) 稗說, 野談, 小說 등의 비정통 한문학 장르가 대부분 문집에 실리지 못했다는 점은 박희병, 2008 『유교와 한문산문』,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62면 참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둘째로, 간본 『소재집』의 편집방식은 유가 외의 사상에 대한 취향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남명집』, 『능호집』, 『택당집』, 『동계집』에서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남명집』은 퇴계 이황이 南冥 曹植(1501-1572)의 사상적 순정성을 비판하였고 초간을 주도한 鄭仁弘(1535-1623)이 仁祖反正으로 처형되었으므로, 무수한 판본으로 중간되면서 정인홍 관계 내용이 刪削되고 저자의 老莊의 趣向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편집되었다.³⁸⁾

『능호집』도 저자의 內丹學에 관한 조예를 보여주는 「內養銘」이라든지, 유학과 仙佛의 장단을 비교한 「酒戒」란 글이 모두 누락되었다.³⁹⁾ 전술한 것처럼 『택당선생집』도 불가와 도가에 관계된 작품이 대거 누락되었다. 아울러 『간천고』 수록작 가운데 조귀명의 사상적 자유분방함을 보여주는 「小像自贊」과 「畫帖跋」도 간본 『동계집』에는 실리지 못했다. 「소상자찬」은 저자가 자신을 공자, 부처, 나타태자에 견줄으로써 결국은 자신이 유가의 학문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논한 글이고, 「화첩발」은 그림의 효용을 불가의 方便教에 빗대어 설명한 글이다.

일찍이 『남명집』이 노장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편집되었음이 주목되었거니와, 『소재집』, 『택당집』, 『동계집』, 『능호집』의 예로 보건대 이러한 편집방식은 비단 『남명집』에 국한되지 않으며 조선 후기 간본 문집의 공통된 경향성이 아닐까 한다. 이이명처럼 생전에 논론의 종장으로 활약하며 사상적 순정성을 일체 공격받은 적 없던 인물까지도, 그 작품이 사후 편집될 때는 ‘이단에 관심이 있었다’고 공격 받을 만한 작품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산삭의 둘째 유형인 ‘도불 관계 작품의 소거’는 성리학 일변도로 재편되던 조선 후기의 사상적 폐쇄성을 드러내는 한 예라고 판단된다. 저자가 실

38) 남명 조식의 사상에 대한 이황의 순정성 비판에 대해서는 오이환, 1997 「南冥의 儒道思想 比較研究」, 『철학연구』41, 철학연구회, 95-117면; 『남명집』의 증삭에 대해서는 이이화, 1984 「南冥集의 異本 檢討-內容의 增削문제와 關聯하여-」, 『奎章閣』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5-61면 참조.

39) 김수진, 2013 「『능호집』(凌壺集) 편집시각 고찰」,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171-174면.

제로 이단적 지향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산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 간본을 통해서 저자의 像이 만들어지는 것인바 - 이단논쟁에 시비가 될 만한 잠재적 요소는 그 여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셋째로, 간본 『서암집』의 편집방식은 『農巖集』, 『燕巖集』, 『頤齋遺藁』에서 그와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農巖 金昌協의 편지 가운데 사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는 간본 문집에 수록되지 못했다고 한다. 『農巖眞蹟』과 『농암집』을 비교한 결과, 『농암진적』에 실린 편지 중 金時佐(1664-1727)가 김창협(1664-1727)의 가사를 도와주고 김치를 대주고 딸의 사윗감을 찾아주는 등 소소한 일상사를 다룬 것은 간본에서 배제되었고, 학문을 토론하는 내용의 편지들이 주로 간본에 수록되었다고 한다.⁴⁰⁾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燕巖先生書簡帖』의 수록작도 간본 『燕巖集』에는 거의 실리지 못했다. 문집에 수록된 편지의 경우 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문예성이 높은 데 반해 이 서간첩의 편지는 '사적인 가족성'과 '꾸밈없음'이 강하므로 제외된 것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⁴¹⁾ 또한 황윤석의 『이재난고』 수록작 가운데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소실과의 정을 노래한 시는 대부분 간본 문집에 누락되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담박한 생활시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 사사롭다고 여겨져 『이재유고』에는 누락된 것이라고 한다.⁴²⁾

이와 같은 편집방식은 크게 보면 '개인사적인 측면의 축소'란 개념으로 수렴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사적 측면'이란 저자가 사대부, 관리, 학자와 같이 공적으로 부여된 역할 외에 아버지, 남편, 자식,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영위하게 되는 생활사의 면면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문집은 저자의 사적 역사의 기록물이므로, 문집이

40) 배미정, 2009 『農巖 金昌協의 『農巖眞蹟』과 『農巖集』』, 『서지학보』34, 한국서지학회, 98-111면 참조.

41) 『연암선생서간첩』에 대해서는 박희병, 2005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베개, 152-154면 참조.

42) 『이재유고』에 누락된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종묵, 2007 『황윤석의 문학과 『이재난고』의 문학적 가치』,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120-132면 참조.

개인사적 측면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것으로 분류될 만한 일들, 예컨대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가족에 대한 애정, 음식에 대한 기호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삶을 꾸려나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매우 실질적인 사안, 사적인 감정을 다룬 작품은 제외되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아마도 ‘개인사적 측면의 축소’는 사대부가 지녀야 할 이상적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그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한다. 백성을 아끼고 관직을 수행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사대부로서의 공적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사적으로 영위 한 삶을 다룬 작품은 축소됐던 게 아닌가 한다. 일상사를 다룬 작품이 모두 배제된 것은 아니고, 관심의 폭이 一身의 범위를 넘지 않아서 자칫 국량이 좁다거나 公義에 무관한 일에 함몰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작품은 제외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 넷째로, 간본 『동계집』의 편집방식은 『熱河日記』와 『頤齋遺藁』에서 그와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교정표시가 되어있는 필사본 『열하일기』를 보면, 중국 여성의 인물을 묘사한 구절이라든가 연암이 투전판에서 노름한 내용 등이 주로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고 한다.⁴³⁾ 아울러 『열하일기』의 이본을 대조해보면, 性的 聯想과 관련된 표현들과 양반의 체모에 어긋나는 연암의 소탈한 언동이 드러난 부분이 改作本에서 무난한 표현으로 수정되었다고 한다.⁴⁴⁾ 이런 식의 부분 수정은 작품 전체를 산삭한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동계집』의 편집방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실린 俳諧體 詩를 비롯해서 해학적인 내용의 작품이 간본인 『이재유고』에는 수록되지 못했다.⁴⁵⁾ 『간천고』에도 蘇軾의 「答賈耘老」 척독에 나오는 구절을 점철해 지은 戲作이 실려 있지만 간본에는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편집방식은 점잖지 않은 내용의 소거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43) 김성철, 1993 『옛 사람들의 文集校正』, 『민족문화사연구』3, 민족문화사학회, 192-206면 참조.

44) 『열하일기』 이본에 나타난 개작의 양상에 대해서는 김명호, 1990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44-47면 참조.

45) 이종묵, 앞의 논문, 127면.

‘외설성’과 ‘유회성’이 느껴지는 작품이 주로 점잖지 않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내용상 저속하다고 분류되는 제재를 다룬 것 외에도, 표현이 장난스럽고 익살맞은 작품도 비슷한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도덕적 엄숙주의가 편집의 원리로 작동한 것이다.

그 다섯째로, 간본 『단릉산인유집』의 편집방식은 『점필재집』, 『남명집』, 『어우집』, 『능호집』에서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정치적 기휘성과 당파성에 의거한 편집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작품의 전체적 내용이 문제시되어 삭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인물이 문제시되어 삭제된 것이다. 전자는 역대 군주 및 당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해서 상대파의 공격을 받을 만한 작품이 산삭된 경우를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 김종직과 황윤석, 유몽인의 예가 분석되었다. 김종직의 경우 端宗 廢位 사건을 비판한 『弔義祭文』이 문제가 되어 『점필재집』이 毀板되었고, 황윤석의 경우 민감한 정치 사안을 다룬 글이 간본 『이재유고』에서 누락되었다.⁴⁶⁾

한편 후자는 정치적 기휘 인물과 관계된 작품이 산삭된 경우를 말한다. 조식과 유몽인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남명집』에 정인홍 관계 작품이 지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유몽인의 『어우집』에도 李爾瞻(1560-1623)을 비롯해서 大北派 인물들에게 지어준 글이 누락되었다.⁴⁷⁾

이와 더불어 『단릉산인유집』이 간행된 바로 그 해에 김종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간행된 이인상의 『능호집』도 동일한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퇴계 관련 작품이 모조리 제외되었고, 역모죄로 처단된 洪啓禧(1703-1771), 尹象厚(1727-?), 尹養厚(1729-1776)와 관계된 작품이 배제되거나 해당 이름이 삭제된 채 수록되었다.⁴⁸⁾

사실 간본인 『단릉산인유집』과 『능호집』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단릉유고』와 『뇌상관고』를 살펴보면 이윤영과 이인상 세대만 하더라도 홍계희 부자, 윤상후 형

46) 『점필재집』에 대해서는 신승운, 1995 『成宗朝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한국문헌정보학회, 367-381면; 『이재유고』에 대해서는 이종묵, 위의 논문 참조.

47) 이이화, 앞의 논문, 48-60면; 신익철, 앞의 논문, 9-14면.

48) 김수진, 앞의 논문, 169-171면, 177-178면.

제, 黃景源(1709-1787), 洪樂純(1723-1782), 김중수, 尹冕東(1720-1790) 등이 직·간접적으로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던 老論系 인물이므로, 친밀도는 균일하지 않지만 다소 포괄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윤영과 이인상 사후 20년이 지난 시기에 이르면 노론이 정치 현안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파되면서 교유의 폭이 점차 좁아짐을 포착할 수 있다. 『단릉산인유집』과 『능호집』에 홍계희 가문과 윤양후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은 이러한 노론의 분파와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기휘성에 의거한 편집이란 그 문집 편찬자의 당파성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는 것임을 감지케 한다.

5. 結論

본고는 조선 후기 간본 문집에서 누락된 작품을 대상으로 그 공통된 경향성을 탐색하였다. 규장각 소장 문집에 대한 조사와 기존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서, 산삭의 경향성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첫째는 ‘신이성과 허구성의 배제’이고, 둘째는 ‘도불 관계 작품의 소거’이고, 셋째는 ‘개인사적 측면의 축소’이고, 넷째는 ‘외설성과 유희성의 소거’이며, 다섯째는 ‘정치적 기휘성과 당파성에 의한 산삭’이다.

개별 문집마다 고유한 편찬 의도와 편집 시각이 존재하므로 산삭의 유형이 모든 간본 문집에 걸쳐 동일한 강도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일종의 유형화를 시도한 것은, 조선 후기 간본 문집이 지금의 형태로 전래된 것은 ‘편집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의 고찰은 조선 후기 문집 연구에서 複線的 視角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문집이 저자 일인의 저술집’이라는 측면에서 수록작을 검토하고 작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문집이 후인의 편집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편찬 주체가 누구이고 편집상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 문집 안으로 들어가서 수록내용을 검토하되, 여기에 그치지 말고 다시금 문집 밖으로 나가서 문집의 편집을 맡은 인물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떠한 사

회적 맥락 속에서 문집의 편찬을 결정했으며 수록작 선정의 원칙은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한 후, 다시금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집의 수록내용을 재검해야 한다.

간본 문집의 안과 밖을 통관하는 이러한 복선적 시각은, 후인의 편집이라는 매개변수를 간과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편집상의 특징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조선 후기 간본 문집을 대할 때에는 그 수록내용이 저자의 全貌가 아니라 一面을 보여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조사 자료의 외연을 넓혀가면서, 본고가 시도한 유형화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요청된다.

논문투고일(2013. 4. 30), 심사일(2013. 5. 21), 게재확정일(2013. 6. 4)

〈참고문헌〉

1. 자료

- 金壽恒, 『文谷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金昌集, 『夢窩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金昌協, 『農巖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宋騏洙, 『剛齋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申 暲, 『直菴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申靖夏, 『私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 『恕菴先生集選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 『恕菴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李圭景(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81, 『국역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李 植, 『澤堂先生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 『澤堂先生遺稿刊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 『澤堂先生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李胤永, 『丹陵遺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_____, 『丹陵山人遺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李頤命, 『疎齋先生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 『疎齋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任 墜(정한국 역), 2005, 『교감 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任天常, 『瑣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趙龜命, 『乾川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인본.
 _____, 『東谿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趙文命, 『鶴巖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 『鶴巖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 단행본 및 논문

- 김대중, 2005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호, 1990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김성철, 1993 『옛 사람들의 文集校正』, 『민족문화사연구』 3, 민족문화사학회.
 김수진, 2011 『『乾川藁』 評點批評 再論』,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_____, 2011 『『乾川藁』 解題』, 『乾川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인본.
 _____, 2012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3 『『능호집』(凌壺集) 편집시각 고찰』,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김윤수, 1992 『『南冥集』의 冊板과 印本の 系統』, 『남명학연구』 2, 남명학연구소
 _____, 1998 『葛庵集의 庚午板變과 『南冥合集』의 葛銘 添削本』, 『동방한문학』 14, 동방한문학회.
 류탁일, 2000 『星湖學派의 文集刊行研究』, 부산대학교출판부.
 _____, 2001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 세종출판사.
 박경남, 2001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희병, 2005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들베개.
 _____, 2008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들베개.
 배미정, 2009 『農巖 金昌協의 『農巖眞蹟』과 『農巖集』』, 『서지학보』 34, 한국서지학회.
 신승운, 1995 『成宗朝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한국문헌정보학회.
 신익철, 1993 『《默好稿》를 통해 본 《於于集》 편찬태도』, 『서지학보』 10, 한국서지학회.
 심재룡, 2004 『지눌연구: 보조선과 한국불교』, 서울대학교출판부.

- 오이환, 1997 「南冥의 儒道思想 比較研究」, 『철학연구』 41, 철학연구회.
- 이이화, 1984 「南冥集」의 異本 檢討: 內容의 增削문제와 關聯하여, 『奎章閣』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복규, 1996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9, 한국고문서학회
- 이종복, 2007 「황윤석의 문학과 『이재난고』의 문학적 가치」,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 임덕선, 2010 「朝鮮後期 文集의 校讎 研究: 『凝齋詩稿』와 『荷塘稿本』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원연, 2009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 서지학회.
- 장유승, 2005 「최고(最古)의 <관동별곡(關東別曲)>」, 『문헌과해석』 32, 태학사.

Abstract

Trends in Editing of Printed Anthologies of Late Joseon Period
 - focusing on Materials found in Kyujanggak Collection -

Kim, Su-jin

Since anthologies in the Joseon period were in general published posthumously, there exists a parameter of ‘editing by posterity’ between the original manuscript and the printed anthologies. In particular, the publication of the posthumous works underwent selection and compression to reduce the cost of publication and to achieve perfection.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issue of editing that involves modification of reality, we must pay careful attention to what the printed anthologies exclude, as well as to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omitted work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mmon trends found in the omission made in the printed anthologies of the late Joseon period.

Comparing Lee Sik(李植)’s *Taekdangseonsaengjip*(澤堂先生集) with *Taekdangseonsaengyugo*(澤堂先生遺稿), Lee I-myeong(李頤命)’s *Sojaejip*(疎齋集) with *Sojaeseonsaengjip*(疎齋先生集), Sin Jeong-ha(申靖夏)’s *Seoamjip*(恕菴集) with *Sago*(私稿), Cho Gui-myeong(趙龜命)’s *Donggyejip*(東谿集) with *Gancheongo*(乾川藁), Lee Yoon-young(李胤永)’s *Dalleungsanimyuji*(丹陵山人遺集) with *Dalleungyugo*(丹陵遺稿), and Cho Mun-myeong(趙文命)’s *Hagamjip*(鶴巖集) with *Hagamgo*(鶴巖稿), and synthesizing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I suggested five types of editing principles. First, ‘exclusion of peculiarity and fiction’, second, ‘elimination of works related to Taoism and Buddhism’, third, ‘reduction of aspects related to personal history’, fourth, ‘elimination of obscenity and amusements’, and ‘factionalism and avoidance of political taboo’.

The categorization attempted here was intended to provide the empirical support to my

argument that printed anthologies of the late Joseon period which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day are ‘productions of the editing process’.

Key words : Printed anthology, Manuscript anthology, Editing by posterity, Trends in editing, Types of elimination